

제주월드컵경기장의 활용방안 연구

정 승 훈*

<목 차>

- I. 개요
- II. 제주월드컵경기장 주요 현황
- III.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 IV. 맺으며

I. 개 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는 전세계적인 지구촌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월드컵을 위한 경기장 건설만 해도 총사업비 1만 9503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사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비용과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주노중, 2002a: 44).

월드컵 경기가 개최된 제주지역은 월드컵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월드컵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건설, 문화와 환경 월드컵을 만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왔으며,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치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허향진, 2002: 29).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한·일월드컵을 통해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높아진 점을 활용하여 포스트월드컵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포스트 월드컵 대책과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본고는 JDI OPINION 제13호 포스트월드컵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거나 수립중에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월드컵 개최효과의 지속화’를 위하여 경기장의 다목적 활용, 수익 시설 설치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요소는 축구 전용경기장의 주 용도인 축구산업의 활성화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에 가장 바람직한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은 축구전용경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편으로 연고지 프로축구팀을 유치하거나 창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된 제주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사후활용방안을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유치 또는 창단, 부대시설 활용 수익사업 전개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월드컵경기장 활용 관련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II. 제주월드컵경기장 주요 현황

1. 제주월드컵경기장 건설 소요재원

제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총 사업비는 1,125억원이며, 재원조달은 체육기금 285억원, 도비 345억5천만원, 시비 494억5천만원이다. 주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1,088억원으로 순수 건설비 927억원, 토지매입·설계감리비 등이 161억원 등이다. 2개의 연습경기장을 건설하는데 37억원이 소요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는 390억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부담과 대회이후의 관리·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제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안)

서귀포시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진출로 뜨거워진 프로축구의 열기를 전국적으

<표 1> 월드컵경기장건설 재원조달 분담계획

(단위 : 억원)

개최 도시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고
		국고 보조	기금 보조	광역 단체 보조	자체 예산	민자	
서울	2,060	600	300	-	660	500	민자 500(축구협회 250, 분양금 등 250)
부산	2,233	670	-	-	1,563	-	지방채 807, 재특용자 639
대구	2,946	721	-	-	2,225	-	지방채 537, 공자기금용자 300 등
인천	2,488	-	418	-	2,070	-	
광주	1,561	341	-	-	1,220	-	지방채 350, 재특용자 400, 공자기금 200 등
대전	1,478	382	-	-	1,096	-	대물변제 350, 재특용자 400
울산	1,514	-	346	-	1,168	-	재특용자 540, 공자기금 70
수원	2,522	-	440	1,080	720	282	지역개발기금 200, 공자기금용자(경기) 800
전주	1,450	-	314	454	682	-	
서귀포	1,251	-	285	345	621	-	기채 390, 재산매각 100, 가용재원 90, 경산비 절감 41
총계	19,503	2,714	2,103	1,879	12,025	782	정부자금용자 3,799억원 (재특 2,279, 공자 1,520)

자료 :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2002. 2. 주노중, “월드컵경기장 효율적 경영의 컨설팅 전략,” 「대구경북포럼」 1·2월호(통권 제34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에서 재인용.
 주)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재원조달계획은 조사시기가 상이하여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자료와 서귀포시 자료가 다름.

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 2003년을 목표로 하는 (가칭)제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과 자치단체의 출자, 도민주 공모방식으로 창단하는 것이며 연고는 제주도로 하고 홈구장은 서귀포시립 제주월드컵경기장이다.

프로축구단은 선수단 28명(선수 23명, 감독·코치 4명, 주치의 1명)과 관리요원 20명 등 모두 40명으로 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축구단 창단예산은 1백억원 정도이며 한국마사회·한진그룹·롯데그룹 등 제주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 대기업과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의 출자, 도민주 공모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자본금 확보계획을 보면 3개 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65억원을 출자하며 제주도와 4개 시·군이 15억원, 도민주 20억원 등이다.

3. 월드컵 경기장 활용방안 비교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는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고 각종 경기와 대규모 공연을 유치해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까르푸에 연간 91억원에 20년간 할인점을 임대하기로 하는 등 최근 11군데 부대시설의 임대를 위한 입찰을 실시해 110억원에 가계약을 맺었다.

부산광역시는 경기장 시설을 레저 스포츠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형 판매시설 유치 등 수익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연고 프로축구단인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스 전용구장을 구덕운동장에서 이 곳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경기장 지하에 레저단지과 상가, 식당가 등 복합상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해 2002년 말까지 시민주 공모를 통해 16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선수단 구성을 완료한 뒤 2003년부터 K리그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프로축구 연고팀의 홈 경기를 연 25회 이상 개최하고 경기장 내외에 광고를 유치해 연간 6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경기장에 할인점과 콜라텍 문화센터 등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경기장 지하 1층 주차장을 할인매장으로, 지상 1층은 실내 골프장과 수영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도시의 경기장 운영방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상오, 2002).

첫째, 사후 활용방안의 주안점은 경제성 극대화를 통한 비용 최소화 원칙을 마련하려 했다. 전체 10개 도시 중 대전과 전주를 제외하고 대형 쇼핑센터나 할인매장을 입주시켜 운영 수익금으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둘째, 스포츠 관련 시설은 복합화해 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건강한 심신 단련에 활용토록 계획하였다. 인천의 경우 축구 중심의 컨셉으로 보조 경기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문화예술시설은 각 기능 중 지역 특성이 명확히 나타나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특성을 경기장 내에 배치하였다. 즉 교양강좌(부산), 자동차

극장(대구), 어린이박물관(인천) 등 다양한 기능이 전개된다. 특히 문화예술 기능으로는 광주의 전통문화 기능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기장에는 영화관이 설치되어 지역 사회의 문화 보조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넷째, 이벤트 기획 기능은 청소년시설과 음식점, 다목적 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산경기장의 경우는 이벤트 기능이 없다. 특히 서울, 서귀포, 인천의 경우는 이벤트에 대한 특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섯째, 숙박 및 체재시설로는 울산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식·음료시설을 모두 가지고 있고 특히 대중적인 호텔의 수요와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 유스호스텔이 인천, 광주, 대구, 수원에 입지하고 있다. 기타 시설로는 유치원, 컨벤션센터, 전문식당가 등을 볼 수 있다.

<표 2>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비교

경기장	활용방안	투입비용	연간유지비 예상
서울	· 프로축구단 유치 · 할인점 등 11개 수익시설 유치	3,200억원	40억
부산	· 아시아경기의 주경기장으로 사용 · 주차장 부지 민간 위탁(12억원)	2,709억원	40억원
인천	· 프로축구단 유치· 시민·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	3,260억원	40억~50억원
광주	· 프로축구단 유치 · 경기장 내의 광고(6억원) · 할인점, 문화센터, 식당가 등 입점	2,281억원	22억원
대구	· 프로축구단 유치	7,204억원	30억원
대전	· 할인점, 골프연습장 등으로 임대	1,217억원	20억원
울산	· 울산 현대축구단에 임대 · 음식점 등 활용	3,000억원	20억원
수원	· 수원 삼성축구단에 임대 · 종합스포츠센터(5,000평) 조성	2,520억원	40억원
전주	· 퍼블릭 골프장 조성(6홀) · 쇼핑몰, 컨벤션센터 유치	2,500억원	21억원
제주	· 각종 대회 유치 · 쇼핑센터 입점	1,125억원	20억원

자료 : 동아일보, 2002. 7. 2.

Ⅲ.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 방안

1. 기본 컨셉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의 기본 컨셉에 따라 관리·운영주체, 경기지원시설(예: 경기장 그라운드, 전광판, 스탠드 등)활용측면과 부대시설(예: 스포츠클리닉센터, 홍보관, 기념품점 등)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컨셉 수립이 요구된다.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의 기본 목표는 축구전용 경기장으로서의 경기운영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과 경기장의 관광명소화를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있다.

기본 컨셉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병행하여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지방채 390억원의 원리금 상환과 연간 20~30억원 규모의 경기장 관리운영비를 고려하고, 투자자본 회수를 위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을 병합 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제주지역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략조건하에서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운영 주체

관리·운영 주체를 논의하기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적합한 사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가.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많은 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양한 관리·운영주체(비영리 위원회, 민간관리회사 등)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등 융통성있게 운영중이다. 자치단체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보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스포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과 관광산업과 같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미국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결부된 광고

효과(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규모 스타디움의 경우, 이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주체의 형태는 민간조직에 의한 것과 제3섹터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각 스타디움의 목적이나 용도, 또는 이윤 추구 등에 의해 사업주체의 관리, 운영의 형태가 결정된다. 대규모 스타디움의 관리 형태를 보면, 동경돔, 후쿠오카돔, 나고야돔, 요코하마돔은 민간이 맡아 운영하고 있고, 대관돔, 가시마사카스타디움, 그린돔前橋(마에바시)는 제3섹터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막대한 공사비와 연간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확보 등 경기장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경기장 관리·운영주체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 대안 유형

1) 행정기관에서 직접 경영

행정기관에서 직접 월드컵경기장을 경영할 경우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운영으로 사업운영의 지휘체계와 의사전달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주민 의사 반영이 용이한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주적·능률적 기업운영이 곤란하고, 경영기술의 축적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의 스포츠마케팅 기법 적용, 스포츠 콘텐츠 산업과 연계방안 마련, 스포츠와 오락적인 이벤트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극히 한정된 능력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

2) 부대시설에 한정된 민간 위탁

서귀포시가 재산소유권과 행정사무 등을 민간에게 전부 위탁하지 않고, 부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이 자기책임과 권한하에 스포츠시설 서비스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영방식이다(주노중, 2002a: 51).

공공부문의 역할인 공공성 이벤트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장경제논리에서의 수익성 이벤트로 월드컵경기장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극대화의 경

영방식을 추구하겠다는 관리방식이다.

서귀포시는 재산소유권, 경기지원시설 관리, 스포츠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부대시설 운영권을 갖는 형태이다.

3)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또는 스포츠마케팅기업에 민간 위탁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장경제논리에서 이용자 서비스 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다.

스포츠마케팅기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활용,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등을 중요시하는 전략이다.

프랑스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 월드컵 경기장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1998년 프랑스월드컵을 위하여 FIFA의 조건인 6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경기장으로 축구를 위해서는 약 7만5000명을 수용하지만 콘서트 등 문화예술이벤트를 위해서는 약 10만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주노중, 2001). 국가소유이지만 보이그스(Boygues), GTM 및 SGE 등 3개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설계와 시공을 맡았으며, 30년 동안(2025년까지) 위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재산소유권과 경기지원시설 관리를 하고,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또는 스포츠마케팅기업에서 스포츠마케팅과 부대시설 관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 재산소유권을 갖고,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또는 스포츠마케팅기업에서 스포츠마케팅과 경기지원시설, 부대시설 등을 관리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제3섹터형 기업

제 3섹터형 기업은 월드컵 관련시설에 대해서 민·관 및 프로구단, 스포츠 이벤트 및 마케팅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형태로서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계획성을 민간부문의 효율성, 유연성, 탄력성과 결합한 관리방식이다(주노중, 2002a: 51).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제 3섹터형으로 경기장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비용을 부

담하여 건설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약 390억원의 지방채를 민간기업이 부담할 경우 제 3섹터형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5) 최종대안 : 제주연고 프로축구단에 관리·운영 위탁

경기장의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의 스포츠마케팅 기법 등 선진적인 관리기법 적용과 탄력적인 인력운영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업에 경기장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일정부분의 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 기업의 프로축구단 창단에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성, 관람객 잠재시장 규모, 투자 메리트 등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불리하다.

따라서 프로축구단 창단시 경기장 관리·운영권 같은 각종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주지역을 연고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제주지역을 연고로하는 프로축구단 창단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업에 경기장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탁, 레저스포츠용품 전용 내국인 면세점 등의 쇼핑시설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프로축구단 운영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서귀포시에는 재산소유권만 소유하도록 하고,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경기장 관리·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민간기업의 경기장 관리·운영으로 인한 경기장의 공공성 약화는 서귀포시와 민간 기업간의 계약시 공공성 보장 사업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유치 또는 창단

월드컵 축구대회 이후에 가장 바람직한 경기장 활용방안은 연고지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거나 창단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경기 관람객 배후시장이 미약하고, 도내 기업

이 영세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주를 연고로 하는 대기업이 프로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가. 제주연고 대기업

기업이미지 개선은 국내 프로축구단의 경우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프로축구단의 창단·운영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주연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프로축구단 창단시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인지도가 상승하는 홍보효과가 클 것이다.

호텔신라, 한진그룹, 한국마사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제주경마장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시설이다. 제주경마장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약 5,000억원(서울지역과의 교차경마 매출액 포함)이며, 약 3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 이용객은 제주도민이며, 경마를 도박으로 생각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아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한국마사회 등 제주연고 대기업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이 바람직하다.

나. 대기업과 자치단체의 출자, 도민주 공모방식으로 창단

민·관이 참여하는 ‘시민구단’의 성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나, 창단 기금 마련과 연간 구단 운영비 마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프로축구단 운영이 적자추세임을 감안할 때 도민주 공모방식은 실현성이 극히 미약하며, 지금까지 도민주 공모방식으로 제주지역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공사례가 없다.

대구에서는 시민주를 공모하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되었으나, 대구지역과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실정이 다르므로 도민주 공모방식의 창단은 취지나 좋으나 실현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최종 대안

제주지역의 경우 창단 비용(프로축구연맹 가입 비용 10억원, 프로축구 발전기금 30억원이상, 구단 운영비용 등으로 약 100억원 소요 전망)과 연간 구단 운영비를 감안할 때 제주지역을 연고로 하는 재정적 능력이 튼튼한 단일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주경마장에서의 수익금을 제주지역사회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제주연고 대기업이 참여하여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제주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3> 프로축구단 창단 주체 관련 유형

구 분	장 점	단 점
1개 대기업 참여 또는 2~3개 대기업 참여	· 연간 운영비 등에 책임이 명확하며, 안정적으로 구단 운영 가능	· 대기업 참여 불투명
민·관합동 컨소시엄 구성	· 시민구단이라는 상징성	· 적자가 계속될 경우 연간 구단 운영비 부담 책임 한계

4. 부대시설 활용 수익사업 전개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전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예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1) 시설명의 판매 또는 임대권(Naming Rights)

경기장의 명칭을 특정 기업에 판매 또는 대여함으로써 경기장 건설재원, 경기장 관리운영비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국 피닉스(Phoenix)의 America West Arena는 America West Airlines란 이름을 3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2,600만불을 건설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보스턴(Boston)에

있는 Fleet Center는 경기장의 이름을 15년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3천만불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주노중, 2001: 34).

프로축구단 창단 참여 대기업 등에 위탁할 경우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다양한 체험공간 창출

해외 주요도시의 월드컵 경기장의 사후활용이 잘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장 내·외에 각종 부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각종 이벤트 등 시민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주요 시설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업시설은 테마식당, 스포츠 서점, 월드컵 기념품 판매점, 레저스포츠용품 전용 내국인 면세점 등이다

둘째, 문화시설은 월드컵 홍보관, 문화전시센터 등이다.

셋째, 체육시설은 스포츠체험관, 스포츠클리닉센터 등이다.

3) 월드컵경기장 관람 유료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건설비와 연간 20~30억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저가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된 일본 삿포르 돐의 경우 '돐 투어(Dome Tour)'를 개발하고 활성화시켰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투어요금은 성인의 경우 1천엔으로 한달 평균 25만명이 이 투어를 통해 경기장을 관람하고 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입장료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거의 부담이 없는 금액인 가령 1,000원이하로 설정해야 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쇼핑시설, 편의시설 등 경기장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4) 제주월드컵경기장 캐릭터 사업 실시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제주인의 생활방식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우선 '올레 Olle'라고 부르는 제주의 전통 초가집의 진입로의 경기장 도입, '오름

Oreum'의 오목하게 패여있는 형태 도입, 경기장 지붕의 '테우 Teu'라는 고기잡이 배의 그물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순풍에 돛을 단 배가 21세기, 5대양 6대주로 힘차게 뺏어나가는 제주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고 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캐릭터 사업(Character Licensing Business)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5) 각종 이벤트 개최

국제 축구대회와 대형 콘서트 유치로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은 대형 콘서트 등의 개최를 위해 경기장 동쪽 하부 스탠드 중앙의 지하에는 대형무대가 시설되어 있으며, 콘서트나 큰 행사를 치를 때면 이 가변무대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중국 한류스타, 일본 스타 등을 활용한 대형이벤트를 개최하여 일본관광시장과 중국관광시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벤트 개최시 경기장의 잔디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 연간 이벤트 개최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국내·외 프로축구팀의 전지훈련장소로 활용

겨울철 기후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온화한 장점을 이용하여 동계기간 중에 다양한 국제축구대회 유치나 국내·외 프로축구팀의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서귀포시에는 동부경기장, 서부경기장, 강창학경기장 등을 비롯하여 천연잔디구장 10개소가 있으므로 이를 제주월드컵경기장과 함께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문화공간으로 활용

수익성과 경제논리에 치우쳐서 제한적인 경기장 활용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연간 유지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이 상권을 부각시키는데 집중된다면 기념품 가게나, 레스토랑, 수익성에 급급한 낙후된 이벤트 사업으로 경기장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월드컵을 치른 생드니 경기장은 현재 수익성에 치우친 이벤트 사업과 경기장에 입점해 있는 몇몇 상가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후활용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프로축구단에 제주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제어장치를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한다.

경기장을 중심으로 스포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을 상설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IV. 맺으며

우리나라의 10개 도시의 월드컵경기장 역시 수익사업이건 공익사업이건 외국같이 과학적인 주변환경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판매·축제·교육·강연·모험·지역·관광·문화·쇼·종교·정치·자선이벤트 등의 각종 이벤트의 효율화와 극대화 전략이 과학적인 주변 환경분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주노중, 2001).

제주지역의 경우 경기관람객 잠재시장 규모, 축구단 창단 메리트 등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불리하기 때문에 제주연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제주월드컵 경기장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서는 경기장의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와 전문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다. 서귀포시에는 재산소유권만 소유하도록 하고,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경기장 관리·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제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 관리·운영 주체 선정 등의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제주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월드컵 경기 개최를 제주지역의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고, 스포츠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이달의 소식, 6월(통권 제39호)

유상오(2002), “월드컵 경기장, 문화의 질 높이자,” 문화도시·문화복지 128호, 한국 문화정책개발원.

전호문(2001), “성공적인 월드컵개최와 월드컵 경기장 경영”, 「성공적인 월드컵개최와 경기장사후활용 방안」 세미나, 광주광역시.

제주발전연구원(2002), JDI OPINION 제13호.

주노중(2001), “스포츠인프라 어디로 가야하나-월드컵경기장 국내외 비교-,” 문화도시·문화복지 114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주노중(2002a), “월드컵 관련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전략,” 「국토」 6월호, 국토연구원.

주노중(2002b), “월드컵경기장 효율적 경영의 컨설팅 전략,” 「대구경북포럼」 1·2월호(통권 제34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허향진(2002), “포스트월드컵 제주관광산업의 발전방안,” 「포스트월드컵, 제주의 기회와 과제」 세미나, 제주발전연구원.